# 함즐함울

**하나님의 선교로 뻗어가는 가정** 롬 10:15 고전 9:16 행 1:8
2024년 주님의교회 표어

485
2024.6.16.
창립36주년기념호


**오늘의 말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19

**오늘의 주요기사**


2 하나님 백성의 선교 요약
3 상례부 수련회
3 청년군인의 편지
4 에바다 제주도 성지순례
5 노래선교단 / 정신포럼
6 (사)섬김과나눔
7 양육클래스 후기
8-9 무지개잔치 사역보고
10-12 여전도회 형제교회 사역
13 교회사용설명서
14 십자말풀이
15 설문조사 심층분석


우리 교회의 이름은

# 주님의 교회 (X)
# 주님의교회 (O)

이름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쓰는 것
교회 사랑의 시작입니다.

교회 이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함즐함울 453호(2022. 7. 3.)를 참고하세요.

우리 신문은 자연보호를 위해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책소개 시리즈
하나님 백성의 선교⑯

# 이제까지의 여정과 앞으로의 여정

우리는 이 책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있는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기대하는 것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들은 어떤 목적 또는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런 질문들에 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

### 성경을 통한 우리의 여정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속하시고, 빚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보내신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교가 함축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묘사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포괄적으로 읽는 것이 필요하다.

### 세상 – 창조세계를 섬김

생태학적으로 책임을 지는 행위는 온 땅의 주인이신 분에 대한 기독교 제자도의 일부로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옳고 선하다. 하나님은 일부 그리스도인들을 생태학적 '선교 사역'으로 부르신다.

**창조세계를 돌보는 것은 오늘날 긴급한 문제다** 환경이 파괴되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지독하게 무지하거나 무책임하리만치 냉담한 처사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분의 피조물을 오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묻고, 우리의 선교 목적을 조정해서 하나님께 중요한 것을 포함시켜 나가야 한다.

**창조세계를 돌보는 것은 창조주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명령에 대한 순종에서 나온다**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첫째이자 가장 큰 계명이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에게 속한 것을 돌보는 것이다. 주님의 명령은 이 땅을 돌보라는 기본적인 창조 명령과 더불어 시작된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창조에 새겨진 다른 의무 및 책임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사명과 의무다.

**창조세계를 돌보는 것은 선교에 대한 우리의 동기를 시험한다** 성경적 선교신학의 궁극적인 출발점과 종착점은 하나님 자신의 선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헌신하신 중차대한 선교 및 역사의 궁극적 성취는 인간의 구원뿐만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의 구속이다.

**창조세계를 돌보는 것은 자비와 정의의 성경적 균형을 구현한다** 하나님의 피조물을 돌보는 것은 우리에게 감사를 표하거나 보답할 수 없는 피조물들을 위한 것이다. 창조세계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한 특징을 지닌다. 또한 하나님이 정의를 시행하시는 행동에 표현된 그분의 성품의 특징들이기도 하다.

### 세상 – 사회를 섬김

**예언자적 과제** 하나님의 백성은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고 독립적인 '신적 감사'를 대신해 말하도록 부름받는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배운 기준에 따라 평가와 비판 또는 승인의 목소리를 내야 함을 의미한다.

**목회적 과제** 직장에서 성도로서 매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후원하는 것 또한 교회의 역할이다. 선교로서 참으로 중요한 그들의 사역은 교회 담장 바깥에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다.

### 복음 – 복음의 온전성을 회복함

**개인적 / 우주적** 우리는 우주적 · 총체적 차원의 복음에서 개인을 분리시키고, 그런 다음 개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아 창조세계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하신 창조세계의 일부로 들어오시는 것이다.

**믿음 / 행함** 우리는 복음을 믿는 것과 복음대로 사는 것을 분리시키고, 그런 다음 믿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믿음과 순종이 분리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믿는다고 주장할 수 없다.

**선포 / 시위** 복음은 들여야 하는 좋은 소식인 동시에 보여야 하는 좋은 소식이다. 복음은 말과 행위가 필요하다. 우리는 너무 쉽게 선교를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이루어져 있다(롬 15:18-19).

### 복음 – 복음의 종으로서 우리의 겸손을 회복함

**누구의 증언이며 누구에게 하는 증언인가** 우리는 우리의 '증언'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심판의 경고 및 그 영광의 희망과 함께 성경적 구속 이야기의 진리를 증거하는, 더 객관적인 요소를 지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춘 복음** 오늘날에도 '번영 복음'이라는 가르침을 전달하는 자들이 있다. 수많은 번영의 가르침을 부채질하는 것이 탐욕이라는 점은 틀림없다. 정말로 무언가를 파는 '복음'은 돈을 받고 몸을 파는 매춘 복음이요, 십자가의 고난당하는 은혜를 부인하는 것이다.

### 복음 – 복음에 대한 확신을 회복함

**복음의 진리** 우리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거듭 확언하고 그 위에 우리의 삶 전체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계속 선교를 수행해 나가면서, 성경은 유일한 이야기, 인생, 우주 및 모든 것을 이해하는 원대한 이야기를 말한다고 선포한다. 이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좋은 소식, 곧 복음이다.

**복음의 유일성** 복음은 한 분 유일하신 살아 계신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이며, 죽고 다시 살아나신 한 분 유일한 인간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복음의 유일성에 대한 확신을 재차 천명할 필요가 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증명할 수 있다. 바울은 모든 인종적, 사회적,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가리킬 수 있었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 교회 – 회개하고 돌아오라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은 "가라"가 아니라 "회개하라"였다. 교회도 그와 같이 되어야 한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는 세상에서 선교할 수 없다. 변함없는 마음의 상태로 회개를 포함하지 않는 효과적인 선교란 있을 수 없다.

### 교회 – 가서 제자 삼으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은 세계 선교의 과제를 수행하는 데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 복음전도와 가르침/제자화는 함께 우리 선교의 필수적이며 본질적인 부분이다. 제자 삼는 것과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다시 제자화하는 것은 수많은 인생과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과제이다.

### 교회 – 땅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선교적 도전은 우리 앞에 다양하고 복잡한 과제가 놓여 있음을 직시한다.

### 교회 –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교적 백성은 예배하는 백성이어야 한다. 예배는 우리가 그분께 의지하고 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우리는 그분의 선교를 섬기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 백성의 선교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함즐함울

상례부
수련회

# 금계국 꽃들이 맞이한 상례부 수련회

6월 4일(화) 상례부 수련회를 강화도로 다녀왔다. 혹시 계획된 날에 상례가 발생하면 다음으로 연기해야 하는 상례부 특성상 상례가 이 날만은 피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날, 맑고 푸른 하늘 아래, 미세먼지 없는 화창한 날씨와 따뜻한 햇빛이 우리를 반겨주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며 우리의 마음도 한껏 들뜨게 했다.

강화도로 이동하는 도로를 따라 길가에 피어있는 금계국이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노란 금계국 꽃들이 한들한들 춤을 추며 우리를 맞이해 주었다. 길가에 피어있는 금계국 덕분에 이동하는 내내 기분이 좋았다. 두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장화리 일몰 조망지였다. 탁 트인 전망과 아름다운 바다 풍경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모두 함께 산책을 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모처럼 만난 동역자들과도 이야기꽃을 피우며 소중한 추억을 남겼다. 특히 길가의 잡초들 사이에 숨어있던 산딸기를 발견했을 때, 그 작은 붉은 열매가 주는 기쁨과 생명력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찾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었다.

서울로 오는 길에 평화전망대에 올랐다. 북한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렇게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멀게만 느껴지는 그 땅을 보며,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더욱 열심으로 기도하겠다는 결단을 하였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동역자들과 함께한 이 아름다운 하루를 통해 주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축복을 경험한 날이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의 자리에서 합력하여 서로를 더욱 더 지지하고 돕는 섬김의 길을 걸어가길 바라며, 그동안의 수고를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한 오늘의 시간이 참으로 소중하고 감사했다.

**상례부**

상례부
수련회

# 우리들 마음의 소원을 이루실 하나님

[ I ] 안녕하세요? 주님의교회 지체 여러분? 상례부를 섬기고 있는 이집사라고 해요. 저는 오늘 상례부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아침에 교회에서 모여 봉고차 두 대로 강화도에 갔는데, 직장인들 퇴근 무렵 교회로 돌아올 때까지 주님이 함께하신 복된 수련회였어요.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그리고 차량운전봉사와 간식 및 후원금 등 물심양면으로 섬겨주신 숨은 독지가분들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려요.

[ II ] 북한의 쌩뚱맞은 오물풍선 도발에 맞서 오늘 우리 당국이 남북한군사합의효력을 전부 정지하여 군사분계선 내 대북방송조치를 재개할 수 있게 된 살벌한 날이라 그런지 이쪽 강화평화전망대에서 바라다보는 바로 저 황해북도 개풍군 고토는 적막강산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남북복음통일의 계획을 믿기에 우리들은 모두 즐겁고 행복하기만 했어요. 특별히 초여름 금계국(국화꽃의 일종)이 노랗게 물든 해안도로변, 탁 트인 서해 바다 앞 라르고 카페에서 왁자지껄한 레크리에이션과 뜨구라(뜨거운 구름 라떼)의 매력에 푹 빠졌던 순간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한 몸 됨과 회복의 기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서 참 감사했어요.

[III] 이종성 목사님께서 우리 상례부가 코로나를 이겨내고 큰 부흥을 이루고 있다면서 기뻐하셨지만, 담당 장로님들과 부장 집사님의 뜨거운 헌신 속에 더 큰 부흥으로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은 우리들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꼭 이루실 것이 믿어졌어요. 주님이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IV] 이처럼 사역이 즐겁고 부흥의 열매가 풍성한 주님의교회 상례부에, 지체들의 멋진 참여를 기다릴게요.

**이효두** 안수집사 / 상례부

청년군인의 일기

# 이 땅의 군인들과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

안녕하십니까? 육군3사관학교에 재학중인 사관생도 나은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저 또한 군인이 되어 우리나라와 국민을 지키고자 하는 꿈을 키웠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사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고, 현재 학교에서 훈련과 교육을 통해 강인한 체력과 올바른 군인 정신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랐던 사관학교에 입학했지만, 이곳에서의 생활은 모든 것이 처음인 저에게 쉬운 것 하나 없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체력단련을 하고, 일반학 공부를 병행하며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이제 늠름한 사관생도로 성장하였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었지만, 저와 항상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곳에서의 모든 일정 중에 있었던 두려움을 극복하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매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군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속에서도 우리의 군인들이 안전하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땅의 군인들과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은비** 청년 / 청년부

장애인사역부
에바다 제주도 성지 순례

# 에바다와 함께 한 사랑의 제주여행

할렐루야! 에바다 제주 성지 순례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하는 시간부터 일정을 마치는 순간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안 닿은 것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2024년 5월, 가장 아름답고 좋은 때에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온 맘 다해 기도로 함께해주셨기에 에바다의 제주도 여정이 가능했습니다.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짧은 소감과 기도로 대신하여 전합니다.

장애인사역부

제주도 성지 순례 기간 동안 날씨가 좋았습니다. 마음 좋은 날씨 덕분에 매 순간 감사했습니다. 제주에서 머무는 곳이 편안했고, 모처럼 일상을 벗어나 평안을 느끼며 행복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바다와 땅과 산과 거리를 거닐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묵상할 수 있어서 더없이 좋았습니다.

수어로 통역하며 수고해주신 서권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고, 제주도의 자연과 경치, 나무와 숲을 볼 때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힘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의교회 에바다 가족들이 참 행복했습니다. 즐겁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홍경선** 집사 / 장애인사역부

제주도에서 만난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따뜻하게 지낼 곳과 아침, 점심, 저녁을 배불리 먹고 사랑으로 하나되어 지낸 시간이 감사합니다. 함께한 주님의 가족들의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하루의 냄새도, 활짝 핀 꽃들도 실컷 만나고, 우리들의 재밌었던 웃음소리가 기억납니다. 서로 말을 많이 하고 서로의 마음이 들려서 참 좋았습니다. 제주도에서 만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신명선** 집사 / 장애인사역부

제주 여행의 2박 3일은 에바다 농아인 활동에서 가장 좋았고 재밌었습니다. 좋고 시원한 곳으로 데려가 주시고 어린 딸과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희, 김정한** 집사 / 장애인사역부

제주도에서 성지순례의 시간은 즐겁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산책하며 공기를 마시는 그 시간이 참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2박 3일의 시간동안 사고 없이 에바다를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을 잘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팜탄항, 유충우** 집사 / 장애인사역부

사랑과 은혜와 감사의 달 5월을 보내면서, 우리교회의 청각장애인의 모임인 에바다(열리라는 뜻) 가족들과 지난 23일부터 3일 동안 제주도를 즐겁게 잘 다녀왔습니다. 17명의 에바다 가족들은 출발 때부터 어찌나 좋아하시는지 집합시간보다 다들 무려 1시간이나 먼저 와서 서로서로 배려하며 짐을 부치고 공항에서 기다리는 오랜 시간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제주도를 처음 가는 분들도 있었고, 비행기를 처음 타는 분들도 있었고, 몽골에서 오신 분, 베트남에서 오신 분, 중국에서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모두 다 따뜻한 한 가족이었습니다.

첫날은 물 위에 떠 있는 듯 노아의 방주를 형상화한 방주교회를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고 각자 주님께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동한 더마파크에서 말들의 공연을 보며 환성이 터졌답니다. 둘째 날은 어린이처럼 신나게 즐기고 놀 수 있게 에코랜드와 과즙을 만드는 체험농장을 방문하였는데 어찌나 예쁘고 맛나게 잘 만드는지 농장 주인께서도 모두가 잘하고 표정들이 밝다고 칭찬이 대단했답니다. 셋째 날은 이시돌 목장과 세미 은총의 동산을 방문하였는데 예수님 생애 공원과 십자가의 길 14처를 다 돌면서 모두 간절하게 기도하며 각자의 소원을 주께 아뢰는 모습들은 우리 모두를 숙연하고 감동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에바다의 마스코트인, 우리 손주보다 한 살 많은 루아와 함께한 시간이 있어서 더욱 감사했습니다. 아내를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잘 따랐음에 감사하고, 지난 주일 에바다 예배 때 만나니 더욱 반갑고 기뻤습니다. 친손주를 하나 더 얻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으로 청각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에바다 가족들의 비단같이 곱고 아름다운 마음과 서로를 배려하는 넓고 깊고 따뜻한 마음에 모두가 감동하는 이번 순례 여행이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평생 기도하며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과 감사와 경배와 찬양과 순종과 겸손을 다해야겠다는 굳은 다짐을 한 감사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동** 안수집사 / 장애인사역부

정신학원
정신여고 노래선교단

# '정신여고 노래선교단'이 노래하는 이유

지난 5월 26일, 주님의교회에서 정신여고 노래선교단 56회가 선물로 찾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아름다운 노란 단복을 입은 한 학생의 순수한 떨림의 목소리가, 그러나 누구보다 간절한 기도가 예배실을 울렸다. 이후 노래선교단의 시그니처 곡인 '노래할 이유 있네'로 찬양의 문이 열렸는데, '사랑',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해'로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가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다.

재밌는 안무가 곁들여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는 찬송가 445장을 리드미컬하게 편곡한 곡으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박수치며 은혜로운 찬양을 불렀다. 마지막 곡인 '세상을 사는 지혜'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렸다. 준비한 5곡의 노래가 끝난 후, 관객의 성원에 힘입어 앵콜곡을 불렀고, 중간에는 5월에 생일을 맞이한 관객을 위해 정성껏 생일을 축복하는 이벤트도 있었다. 매 순간이 감사하고, 감동적인 공연이었다.

노래선교단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신청자를 받고 오디션을 통해서 2학년이 되면 한 반으로 묶여 같이 동고동락하게 된다. 바쁜 학업에도 다른 친구들보다 일찍 등교하고, 늦게 하교하면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정성을 쏟는 노래선교단원들에게 존경스러운 마음이 든다. 이들의 찬양을 들으면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로 다가온다.

이제 노래선교단은 주님의교회를 시작으로 순회연주를 하게 된다. 교회, 병원, 중고등학교 등 13곳에서 예정되어 있고 특별히 7월 7일(주일)~11일(목)에는 지방 순회연주가 예정되어 있다.

노래선교단의 노래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또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다. 장로교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총회헌법에 있는 요리문답에서 첫 번째 질문인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으로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라고 명시한다. 노래선교단 단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선율을 가는 곳곳에서 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노래선교단을 통해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노래선교단의 모든 순회 일정이 순탄하고, 오고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기를, 서로를 향한 화합과 배려를 통해 생활 속에서 삶의 노래도 아름답게 울려 퍼지게 되길 간절히 기도한다.

**김계원** 전도사 / 고등부

청소년사역원
제11, 12회
정신청소년포럼

# 선배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정신청소년포럼은 2019년부터 진행된 주님의교회와 정신학원의 연합사역이다. 정신청소년포럼은 사회와 개인의 삶 속에서 타인과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리더들과 사회활동을 하는 크리스천 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인생의 소중한 가치와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는 긍정적인 힘을 기르도록 하는 것과 앞서 삶의 길을 걷고 있는 선배들과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는 폭을 넓힘으로써 오늘의 불안함과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역사 속에서 살아계셔서, 생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연 2회 진행되어온 정신청소년포럼은 올해부터 연 4회로 회수를 늘려 진행한다. 제11, 12회 정신청소년포럼이 지난 5월 13일(월)과 5월 27일(월), 오후 2시 ~ 4시까지 700여 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강의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제11회 '옥시토신이 알려주는 성공의 비밀'**
– 전용관 교수(연세대학교 스포츠 응용산업학과 교수)

**제12회 '과학 및 수학 난제의 이해와 발전 – 질문과 토론 그리고 소통의 중요성'**
– 곽시종 교수(카이스트 수학과 / 자연대 학장)

전용관 교수와 곽시종 교수는 인생의 선배와 어른으로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삶의 걸음과 인생의 이야기, 그리고 학문을 통해 깨달은 삶의 지혜와 통찰을 통해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도전을 주고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전해주었다. 강의를 들은 청소년들의 진지한 질문을 들은 전용관교수는, 대학 강의보다도 더 좋은 질문을 던져주었다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아이들의 질문에 정성껏 응답해주었다.

계속해서 정신청소년포럼이 교회와 학교와 가정(부모와 지역사회)이 함께 청소년을 사랑하고 살리며, 그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울타리가 되어주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기를 소망한다. 13회, 14회 정신포럼은 7월 11일(목)과 10월 7일(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임경순** 목사 / 청소년숲

(사)섬김과나눔
송파교육복지센터

# 하나 된 마을, 든든한 가족, 행복한 아이

2016년 3월 1일 개소한 송파교육복지센터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이 지정하고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사)섬김과나눔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송파구 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취약 학생의 맞춤형 통합지원(학교적응력, 정서·행동, 가족지원 등)을 통해 학생 성장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현재 교육복지센터는 서울시 자치구 별 1개소씩 총 2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 지침에 따라 자치구에서 장소를 제공하며 구청과 지역교육청이 함께 협력하여 교육취약 학생들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고자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송파교육복지센터는 송파구청이 장소를 제공하여 개소 때부터 삼전동 행복주택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송파교육복지센터에서는 크게 개인성장 지원, 정서·행동 지원, 학교적응력향상 지원, 가족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성장 지원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학생과 관련된 환경을 조사하여 개별 학생에게 적합한 자원을 제공하고 어려움이 완화되거나 해결될 때까지 센터의 담당자가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서·행동 지원은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의 심리적, 정신적인 건강이 회복하도록 돕는 활동입니다.

학교적응력향상 지원은 하루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학생이 적응할 수 있도록 또래관계향상, 학업능력향상, 진로탐색 등 학생의 성장 단계에서 필요한 사회적 발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가족 지원은 아직 미성년인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보호자인 가족의 역할과 태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호자 교육, 보호자 상담, 가족활동 등을 통해 가족의 역동을 탐색하고 올바른 양육과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섬김과나눔은 2016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사회복지 및 공익사업을 수행,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번영과 행복증진에 기여한다'라는 미션에 따라 송파교육복지센터의 교육 취약 학생 지원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물적, 인적 자원을 아낌없이 제공하며 송파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매년 2,000만원을 전입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사랑 이웃사랑 이웃돕기 공모사업'을 통한 맞춤형(생활지원금, 긴급의료비, 주거환경개선비, 장학금 등) 지원을 2021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성탄주간 '생명사랑 이웃사랑 희망상자'나눔 또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167개를 지원하였고, 교육취약 학생 가정에 특별지원방안 마련 등 교육복지센터를 수탁하는 법인으로서 교육취약 학생 및 가정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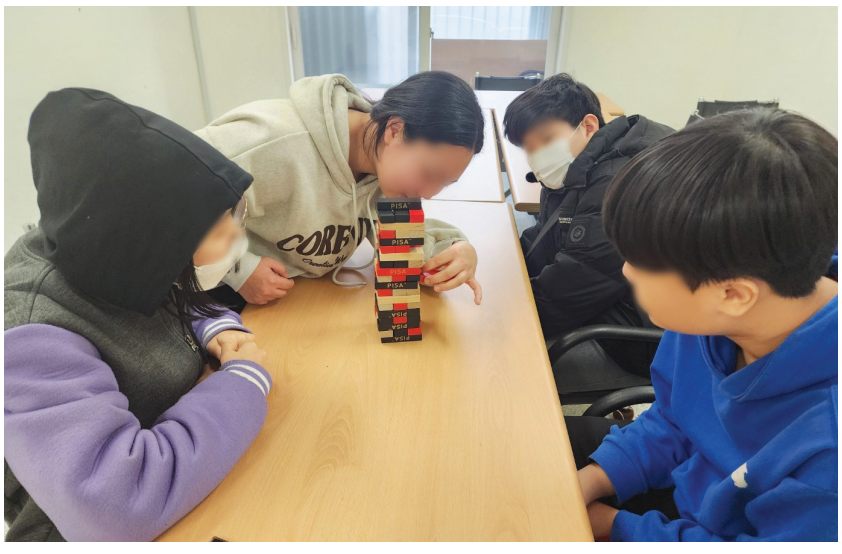
2023년 11월부터는 타인과의 관계, 일상적 관계를 통해 신뢰를 경험하고 응원과 격려를 통한 치유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학생성장 응원단 'With You'멘토단 운영에 주님의교회 교인들이 멘토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교육취약 학생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며 현재까지 조력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활동으로 (사)섬김과나눔은 '기부 및 사회 협력 우수 협조 감사장(2018년)'을 서울시 교육감으로부터 받았으며 송파교육복지센터는 '교육복지 유공기관 교육감 표창(2021년)'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송파교육복지센터는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학생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기며 전문적인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 송파교육복지센터는 함께 해 줄 자원봉사자를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02-414-7982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송파교육복지센터 소개 및 소식은 홈페이지(www.spewc.net)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섬김과나눔 송파교육복지센터**



양육클래스
성경적 재정 교육

# 착하고 충성된 종

2024년도 봄학기 양육클래스 총 10개 강좌(온라인 1개, 현장 9개)가 3월 12일에 시작하여 모두 마쳤습니다. 10개 강의 중 성경적 재정교육은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7명의 수강생이 소그룹으로 모여 강의를 들었습니다. 성경적 재정교육은 한국청지기아카데미에서 준비하고 진행한 강좌입니다. 한국청지기아카데미는 평신도 중심 비영리 초교파 기독교 사역단체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자원들(물질, 재능, 시간, 건강)을 자신과 가족의 필요에 맞게 사용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도와주어, 궁극적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한국청지기아카데미는 현재 'Crown Financial Ministries'와 'Compass-finances God's way'등 국제재정사역단체와 공식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여 청지기 양성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모두 마치고 강의에서 배우고 느꼈던 것들을 함께 나눕니다.

**함즐함울**

평소 돈을 다루고 관리하는 능력과 관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저는 '성경적 재정 교육'이라는 주제가 단번에 눈에 띄었고 성경적으로 어떻게 재정을 관리하면 되는지 배울 수 있다는 기대감에 신청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제가 가장 잘한 것 중의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집중했던 시간은 2주차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_ 마 25:21**

2주차 성경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이 주권자이며 소유권자, 공급자라는 분명한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정체성이 드러나자 청지기라는 나의 정체성도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청지기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과 모든 영역, 즉 구체적으로 일, 드리기, 지출, 조언, 부채, 투자, 자녀, 정직에 충성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충성하고 싶지만 지금 그러한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가장 인성적이었던 것은 <소유권 양도서> 작성이었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리스트를 적어가는데 괜히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내가 다 드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이 비슷한 마음이어서 위로되었지만 결국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여기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란 사실을 오롯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정을 마치고 변화된 것은 소비하거나 지출할 때 예전보다 신중해진 것입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고 사용했던 생각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잘 사용하고 싶어졌습니다. 소득의 5%는 저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교육받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과정을 인도하고 강의를 하신 왕진무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윤정** 집사 / 5교구

최근 몇 년간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돈'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내 집 마련이었고, 내 집 마련을 위해선 돈이 필요하니 온통 관심이 거기에 가 있었습니다. 남들은 쉽게 장만하는 것 같은 내 집이 항상 뭔가의 문제로 저희 부부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주보에서 '성경적 재정 교육'을 발견했고 내가 이토록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돈에 대해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아야겠다는 마음으로 교육을 신청했습니다.

성경적 재정 교육은 실제적인 교육이었습니다. 1주 서론, 2주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 3주 부채 등등 한 주 한 주 배워갈수록 주님이 제가 나아갈 길을 정확히 알려주시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이며 주님은 소유권자이고, 주권자이며,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며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을 날마다 입으로 반복하게 하셨고, 마음에 새기게 하셨습니다. 서울에서 집을 마련할 때 어느 정도까지의 대출이 적정한지 배운 이후 그 부분을 지켜 집을 구하려고 했을 때, 저희 부부가 고려했던 것보다 좋은 조건의 집을 계약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재정 교육을 통해 저희 가정은 컴퍼스 머니맵 4차 목적지를 마무리하고 5차 목적지(형편에 맞는 집을 구매한다. 주택 담보대출 상환을 시작한다. 현명한 투자를 시작한다.)에 도달하였습니다.

성경적 재정 교육을 통해 배운 대로 꾸준히 부채에서 벗어나는 일에 힘쓰며 기쁨으로 구제하고 드리고 나누며 예산을 세우고 저축하여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을 위해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 마주하는 그 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며 우리 삶의 주인 자리를 놓고 주님과 겨루는 첫 번째 경쟁자인 '돈'에 대해 배우는 이 프로그램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서두리** 집사 / 8교구

2024 무지개잔치

# 2024 전교인 무지개잔치 '미션 메이커스'

2024년 5월 15일 오전 10시, 아이들의 목소리, 각 교구, 지역 주민들과 함께 주님의교회가 들썩들썩 거렸습니다. 작년에 이어 전교인 대상으로 마련된 2024 전교인 무지개잔치는 교회를 넘어 지역의 대표 잔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유아숲의 어린이부터 교회의 모든 성도들까지, 총 5개 존, 45개 프로그램, 363명 봉사자의 헌신과 기도로 준비되었습니다. 2024 전교인 무지개잔치의 일곱 가지 빛깔을 소개합니다!

**빨강 빛깔 – 미션! 메이커스**

올해 무지개잔치는 미션 메이커스(Mission Makers, 롬 10:15)이라는 주제로 주님의교회가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을 위해 큰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며, 3040 젊은부부 세대를 적극적으로 격려하며 더 나아가 이들을 교회공동체 안에 머물게 하고, 하나님의 선교가 뻗어가도록 지역을 복음전도의 기회로 삼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주황 빛깔 – 플레이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잔치를 누리기 위해 입장시간 30분 전부터 수많은 어린이들과 성도들이 몰려들었습니다(어린이 약 1,200명, 성인 약 1,800명). 동물 캐릭터 친구들의 환영을 받으며 입장부스에서 입장팔찌와 무지개잔치 브로슈어, 무료쿠폰을 받은 어린이들은 에어바운스에서 뛰놀고, 바이킹과 우주선, 전동 기차를 비롯한 여러 놀이기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예년에 비해 다소 쌀쌀한 날씨 가운데도 어린이들의 모습에서는 따뜻한 미소만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남선교회의 귀한 섬김으로 아이들은 더욱 안전하게 플레이존에서 놀이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포토존 앞에서 하나되는 친구들과 가족들의 얼굴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넘쳤으며, 부모님은 추억의 두더지게임 앞에서, 아이들은 농구게임과 해머치기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노랑 빛깔 – 패밀리존**

올해 패밀리존은 다양한 놀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로 가득했습니다. 미취학 어린이들과 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준비된 패밀리존은 페이스페인팅, 컬러풀 색칠풍선, 피리 만들기, 사영리 십자가 팔찌 만들기, 풍선아트, 5가지 미션을 완성하라!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패밀리존 부스를 찾는 부모와 자녀의 발길이 잔치 내내 이어졌습니다.

**초록 빛깔 – 푸드존**

무지개잔치에는 맛있는 먹거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전 행사보다 더욱 풍성하게 준비된 푸드존의 맛있는 냄새로 잔치의 흥을 더했습니다. 한쪽에는 떡볶이의 매콤한 맛이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순대와 찐빵과 국밥은 잔치를 즐기는 모든 이들에게 배고픈 배를 든든히 채워주었으며, 시원한 음료는 마른 갈증을 풀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참스테이크와 소떡소떡은 무지개 잔치의 또 다른 별미였습니다. 정성껏 준비된 커피를 손에 든 어른들과 아이스크림, 팝콘을 양손에 쥐고 환하게 웃는 어린이들의 모습은 마냥 행복했습니다.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푸드트럭(타코야끼, 쌀핫도그)을 초대하여, 복음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선교가 뻗어가게 실천한 잔치였습니다. 푸짐한 먹거리 뒤에는 1~6여전도회와 헌신적인 기도와 봉사가 있었습니다. 여러 음식 준비로, 설거지 봉사 등으로 함께 한 수많은 봉사자들의 귀한 섬김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파랑 빛깔 – 교구행사**

이번 무지개잔치는 교구가 하나되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양과 즐거운 퀴즈와 다채로운 선물 추첨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올해는 세븐에듀 대표 차길영 대표를 모시고 '수학실력과 영성을 키워주는 법'이라는 주제로 자녀와 함께 한 부모님들의 큰 관심 속에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남색 빛깔 – 교육부스존**

1층 로비에 설치된 교육부스는 주님의교회 교육사역을 온 교회와 지역사회에 알리는 홍보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워내는 주님의교회 교육사역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보라 빛깔 – 하나님의 선교로 하나되게 하실 하나님**

전교인 무지개잔치를 위해 주차봉사로, 사진으로, 영상으로, 의료지원으로, 청소 및 정리로, 여러 시설 점검으로, 기도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긴 수많은 분들의 헌신도 잊을 수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로 여러 제한된 상황들도 있었지만, 무지개잔치 하루 만큼은 주님의교회 모든 성도들과 지역사회가 서로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잔치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를 위해 헌신하신 대회장 담임목사님, 위원장 박기운 장로님, 황용환·조병길·이성준·김은성·임익수 장로님, 기획팀으로 올 초부터 함께 동역한 최영인 피택장로님, 정유석 안수집사님, 김미성 권사님, 윤현희 집사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2025년에도 무지개잔치에도 주님의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세우시고 하나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상훈** 목사 / 유소년숲

## 2024 전교인 무지개잔치
봉사자 명단

| 구획 | 팀장 | 내용 | 대상 | 담당부서 | 봉사인원 | 봉사자 |
|---|---|---|---|---|---|---|
| 계 | – | 54개 프로그램 | – | – | 362 | |
| 플레이존 | 최영인 | 장애물에어바운스 | 어린이 | 남선교회 | 2 | 이명기 이정우 |
| | | 에어바운스 | | | 3 | 전선재 송성욱 임성훈 |
| | | 미니언즈 지붕 에어바운스 | | | 2 | 김길동 황남효 |
| | | 삐에로슬라이딩 에어바운스 | | | 2 | 임채홍 박성갑 |
| | | 다람쥐통 | | | 2 | 신영백 나관주 |
| | | 바이킹1 | | | 2 | 이상선 이재홍 |
| | | 바이킹2 | | | 2 | 이익배 최운철 |
| | | 우주선1 | | | 2 | 정상기 정지영 |
| | | 우주선2 | 미취학 어린이 | | 2 | 신승현 조영은 |
| | | 회전목마 (실내) | | 유아숲 | 4 | 추미선 김경진 김경숙 홍민우 |
| | | 빙글이 (실내) | | | | |
| | | 영아용 에어바운스 (실내) | | | | |
| | | 전동기차 | | | 5 | 김정은 박지영 황혜영 이수진 이동근 |
| | | 사격존 | 전교인 | 소년2부 | 7 | 서호경 박성일 이은주 김상아 김소진 김진욱 윤승진 |
| | | 추억의 두더지 잡기 2대 | | 초등2부 | 2 | 장현진 조연주 |
| | | 농구게임 | | | 2 | 김종철 최유림 |
| | | 헤머펀치 | | | 2 | 조민호 김상분 |
| | | 실내포토존 | | 청소년숲 | 13 | 함혜련 최윤희 최혜원 김계원 오성민 김지원 유은하 우정수 유윤정 탁윤주 윤병주 장숙희 신지원 |
| 교육부스존 | 강요한 | 유유청청 | 전교인 | – | 1 | 강요한 |
| 패밀리존 | 이윤경 | 봄의 꽃 만화경, 피리 만들기 | 전교인 | 유아숲 | 4 | 손은혜 조은영 신현정 이영선 |
| | | 사영리십자가 팔찌, 페이스페인팅 | | | 5 | 이선유 이선민 이소리 김경진 정의영 |
| | | 접이식수박부채(여름투명필름 만들기 | | | 7 | 최정윤 조정속 이미화 이인숙 송지수 김나연 이은솔 |
| | | 컬러튼색칠품선 | | | 5 | 전기옥 염기영 우민수 좌봉준 김예경 |
| | | 미션1 너의 시원함을 보여줘 | | 소년부 | 7 | 허가화 우지민 김주영 유재환 윤경자 박소정 남초롱 |
| | | 미션2 너의 예술을 보여줘 | | 유소년숲 EM | 7 | 이윤정 김영인 양수미 이진영 김지은 김재율 이영수 |
| | | 미션3 너의 센스를 보여줘 | | 유년부 | 8 | 권택정 김영림 송영민 장민영 조영은 박혜은 이수영 차경진 |
| | | 미션4 너의 스킬을 보여줘 | | 초등부 | 8 | 고상민 이현숙 황유정 임광희 이선우 송현지 조지현 이승훈 |
| | | 미션5 너의 즐거움을 보여줘 | | 스팍스.티엔티 | 6 | 김지아 유지연 정지영 혜령 노형준 이진원 |
| | | 풍선아트 | | – | 2 | 허소정 송준영 |
| 교구행사존 | 임익수 | 교구행사(특강, 게임) | 교구 | 교구 | 5 | 배윤환 이미경 홍이랑 한상민 한혜원 |
| 푸드존 | 정유석 | 푸드트럭1(타코야끼) | 전교인 | 소년1부 | 1 | 민연식 |
| | | 푸드트럭2(쌀핫도그) | | 유년1부 | 4 | 조수옥 노정민 김선희 김애리 |
| | | 아이스크림 | | 유년2부 | 2 | 김경주 홍석화 |
| | | 음료판매 | | | 8 | 김천식 최정원 윤진영 최성현 조원준 장희원 주현우 이혜원 |
| | | 팝콘1 | | 청소년숲 | 5 | 김지수 송숙희 정희봉 김옥희 정재영 |
| | | 팝콘2 | | | 5 | 최성이 이미경 이미영 서세아 오주영 |
| | | 소프트아이스크림1 | | | 5 | 김현미 유지은 최명철 김지선 임미희 |
| | | 소프트아이스크림2 | | | 5 | 이신형 오주영 장윤태 백에스더 장소영 |
| | | 아이스커피3종세트 | | 권사/여전도회 | 14 | 신정미 이선우 김정연 전소영 최영미 이승연 여윤정 최윤정 이은경 유은하 이지수 이은우 황 경 독고의선 |
| | | 떡볶이 | | | 14 | 고유자 원인숙 김순희 송용란 유순의 송성열 배영자 권순미 김경숙 이수희 김경숙 최정숙 이경자 강정여 |
| | | 소떡소떡 | | | 21 | 박성연 윤경자 김주현 이주영 정유진 길계선 강민영 전은주 황윤희 정애란 고선애 신경옥 이미경A 정희선 계영주 김영혜 이민영 노정민 박소현 함혜련 남정임 |
| | | 찐빵과 순대 | | | 10 | 나경희 길금옥 김영조 은영희 김운선 성옥환 권석자 김점순 장은정 배홍자 |
| | | 찹스테이크 | | | 36 | 신영숙 남종자 신혜숙 홍계옥 고명숙 이혜경 이민숙 김미자 이숙희 최영순 강정임 김광희 김경희 김숙자 한경숙 민연식 박문숙 조미선 박정은 유소자 윤여금 임연옥 오성자 최재경 김신정 배애리 김재실 이미영 임현주 조영미 남궁옥귀 정정숙 이선옥 정구일 송희 염수옥 |
| | | 국밥 | | | 45 | 이왕희 고영선 안남희 김경혜 유 경 원은영 최종희 김미선 성순현 김미성 김명숙 고경임 송정애 신민숙 방혜령 강승미 이양진 최연호 이경란 윤정현 이유성 정선화 진경숙 장계희 이정금 신말희 최혜선 김애리 윤숙영 김영란 정기순 이 정 유종숙 전기숙 오용희 이영애 최경희 이춘희 권진영 노수희 박선주 천정희 최현정 유정아 유윤실 |
| | | 주방 지원 | | 지원자 | 9 | 윤상현 하광엽 이성균 장동현 송재승 이신형 배주곤 이성균 최민기 |
| 쿠폰판매 | 윤현희 | 쿠폰판매 | 전교인 | 유소년숲 회계 | 6 | 이현미 한경희 조경란 정영선 유정은 황영임 |
| | 김미성 | 쿠폰마감 | | 회계팀 | 8 | 임연옥 목기숙 배애리 정정숙 홍이랑 송성욱 김주현 윤현희 |
| 등록부스 | 이상훈 | 등록(무료쿠폰) | 미취학어린이 | 유아숲임원 | 6 | 박수희 송희 권이홍 조은경 어진원 이인숙 |
| | | | 취학어린이 | 유소년숲임원 | 9 | 김경희 신재은 김선희 원은영 이경아 이춘희 임광희 장병남 유경 |
| 캐릭터 | 이상훈 | 캐릭터 | 전교인 | – | 3 | 김지민 박준범 장성식 |
| 주차 | 박기운 | 주차 안내 | 전교인 | 봉사분과 | 3 | 이성옥 오상훈 원종철 |
| 의료 | 박기운 | 의료지원 | 전교인 | – | 5 | 이광우 지형민 김민직 강석구 박정실 |
| 청소 및 정리 | 박기운 | 행사전 청소 | – | 안수집사회 | 6 | 임정식 박범석 임성훈 박경준 배태민 임채홍 |
| 전기 가스 시설 | 박기운 | 전기 및 가스 설치, 행사후 정리 | – | 사무국 | 13 | 정상철 송용미 하태준 윤성태 장태성 이영신 성준용 조희숙 신희수 박태웅 박귀례 김정자 이종분 |

여전도회
형제교회 방문

# 기도, 재정, 사역으로 협력하는 형제교회

형제교회는 주님의교회 부교역자 출신 목사님들이 담임목회하시는 교회로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을 정도의 재정, 인적 자원이 갖추어질 때까지) 주님의교회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교회입니다. 각 여전도회와 협력교회를 일대일 연결하여 기도, 재정, 사역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각 여전도회의 형제교회 방문 소식을 나눕니다. **배윤환** 목사

**5여전도회 | 맑은세상 세린교회**

저희 5여전도회는 5월26일에 춘천 맑은세상 세린교회(정희성 목사) 창립기념 예배에 참석하여 은혜로운 찬양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주일 일정이라 결정할 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협력교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침 8시 30분에 모여서 주일 예배 방문 행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5여전도회 회원 11명과 국내선교팀 6명, 배윤환 목사님 총1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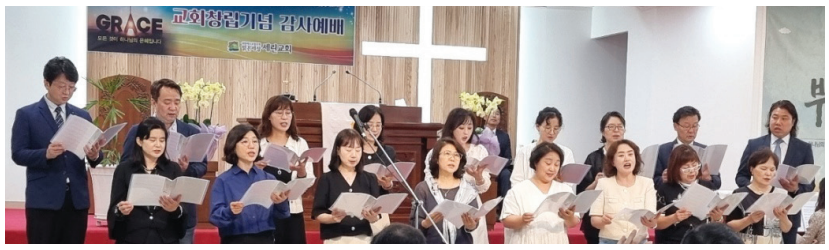
특송은 '선한능력으로'라는 곡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일찍 도착해서 예배 시작 전에 회원들과 함께 찬양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예배의 시작은 찬양팀과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찬양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그 후에 우리도 준비한 '선한 능력으로'를 특송으로 하였고, 목사님께서 '건물이 아닌 너와 나 우리가 교회이며 거져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밝게 웃으시며 맞이해주신 목사님과 사모님, 교인들이 생각납니다. 맑은세상 세린교회는 창립기념예배를 위해 도색과 청소 등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전날 늦은 시간까지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잡채와 호박전, 불고기, 나물, 미역국 등과 수박까지 점심을 풍성하게 대접하여 주셨습니다. 선물로 창립기념떡까지 챙겨주셨습니다. 격려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도리어 귀한 사랑의 대접을 받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송구한 마음이었습니다.

5월 마지막 주일, 함께 예배함으로써 맑은세상 세린교회 상황을 좀 더 알게 되었고 맑은세상 세린교회 표어인 '주여, 부흥케 하옵소서'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이전과는 달라진 마음이 될 거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리라 생각합니다.

5여전도회 회원들 또한 방문 준비로 수고한 손길들이 많았습니다. 모두의 수고와 하나님의 채워주심에 감동받는 시간들이었고 맑은세상 세린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귀한 섬김으로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배우며 돌아왔습니다. 예배와 식사 후 춘천 제이드가든 카페에 한시간 정도 들려서 5여전도회 회원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다시 주님의교회로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5월의 신록이 가득한 제이드가든을 잠깐 보고 와서 조금 아쉬운 면도 있었지만 기쁨과 감사로 채워진 하루였습니다. **박성연** 집사 / 5여전도회장




**6여전도회 | 늘푸른교회**

늘푸른교회 방문을 위해 교회에서 모이기로 했는데 아침에 비가 옵니다. 빗길에 안전운전을 기도하며 9시 즈음에 배윤환목사님과 8명의 회원들이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여전도회의 막둥이들을 아끼고 사랑으로 섬겨 주시는 세 분의 권사님들은 우리보다 먼저 출발하셔서 식사준비를 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가는 차 안에서 특송 연습도 하고 즐겁게 이야기도 나누다 보니 비도 그치고 맑은 하늘을 보게 되네요. 11시쯤 늘푸른교회에 도착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는 회장인 신정미집사가 하였고 부족한 듯 열심으로 준비한 회원들의 특송(하나님의 부르심/주가 일하시네)도 빛을 발하며 유기영목사님의 설교(베드로전서 1:5) 말씀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방적으로 누가 누구를 돕는 게 아닌 서로가 서로에게 마중물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관계로 지속적인 소통과 관심으로 기도하는 사이가 되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큰 일과 작은 일의 구분이 없으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잘 돌아보고 모든 일을 할 때 무엇을 위해 하고 있는지 목적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준비해간 후원금을 전달하였고 교인들과 나눠 드실 두유도 선물로 드렸습니다.

저희는 늘푸른교회로부터 오란다 강정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한 저희는 서울에서부터 나물 반찬을 미리 준비해서 함께 비빔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먼저 도착하신 세 분의 권사님들께서 밥과 된장국을 그리고 쑥전과 해물파전을 준비해 주셔서 풍성한 식탁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 마무리까지 좀 일찍 끝난 것 같아서 서울로 일찍 갈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보내기 아쉬우셨는지 유기영목사님께서 연하협 출렁다리를 보고 가라고 하시어 뜻밖의 소풍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협력교회 방문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걱정은 하나님이 일하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고 우리보다 앞서 준비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에 맞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협력교회 방문을 마치고 지난 5월 29일 2차 방문이 있었습니다. 늘푸른교회 교인들과 함께 생명나무공동체에서 운영하는 복숭아 농장에 시기적으로 열매솎기 작업에 일손이 필요하다 하시어 함께 일손을 보태고 왔습니다. 7월에는 복숭아 수확도 하신다고 하시니 시간이 허락하면 함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협력교회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위해 오늘도 서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신정미** 집사 / 6여전도회장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_ 로마서 8:28**

**3여전도회 | 송우제일교회**

지난 2월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제비뽑기로 송우제일교회가 협력교회로 정해진 후, 송우제일교회의 이창현목사님과 통화를 하여 단순한 방문보다는 함께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지를 여쭈었습니다. 생각해 보자는 목사님의 답을 듣고 임원들과 논의 하던 중, 2년 전에 방문했던 곳인지라 뭔가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역을 함께 하자고 의견을 좁혀 가다가, 그 당시에 본 교회 앞 화단이 떠올라 그 화단을 정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의 뜻을 반기신 목사님과 일정을 조율하던 중, 화초심기는 기온에 민감하여 일러도 늦어도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4월 24일로 정해졌습니다. 목사님의 한 가지 부탁은 화초에 대해 잘 모르니 그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을 찾아봐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여기저기 수소문을 했으나 마땅한 분이 안계셔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중에 날짜는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회원이신 권사님께서 현재의 마당 풍경이라며 꽃이 만발한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꽃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송우제일교회에 이러저러한 화초를 심으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화초를 잘 가꾸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같이 가서 도와주시기를 청했으나 일정상 불가능하다는 답을 듣고서도, 아쉬움 속에 화단 구상이라도 해주셨으면..하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갑자기 한 장의 사진과 함께 '여기가 송우제일교회 맞아요?'라는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못간다고 하고서는 영 마음에 걸려 일부러 와봤다는 통화 가운데 권사님께서 원예, 조경을 공부하셨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모든 준비와 진행이 전문가의 관점에서 권사님의 주도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자주 주고 받는 인사로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었습니다. 목사님과 권사님, 송우제일교회 장로님의 활발한 의견교환으로 화초 선정과 구입이 이루어졌습니다. 포천에 맞는 화초를 알아보기 위해 부근에 심겨진 화초를 조사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구비하느라 여러차례 교회를 방문하신 권사님의 열심으로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일기예보대로 포천에 도착할 시간에는 비가 그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지 않기를 기도하며 남선교회와 중보팀을 포함해 총 40명이 버스로 출발하였습니다. 가는 도중에 비가 그치고 하늘이 개이며 날이 맑아지는 것을 본 우리는,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백성들의 마음이 이랬으리라 생각될 정도로 우리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감격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배 후에 송우제일교회에서 준비해 주신 정성이 가득한 식사를 마치고 마당에 나오니, 다시 구름이 가리워져 작업하기에 최적의 날씨를 주신 것입니다.

몸빼바지를 하나씩 입고 호미와 삽을 들고 선 우리의 모습은 영락없는 농부의 모습이라, 서로 바라보며 웃느라 작업하는 내내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전날 내린 비로 땅이 부드러워져 땅을 파기는 쉬웠으나, 뽑히지 않으려는 잔디 뿌리와 뽑으려는 우리의 씨름으로 새어나오는 신음 소리와 웃음소리가 더 큰 웃음을 터뜨리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풀로 뒤덮인 화단이 민둥산으로 벗겨지고, 그 위에 온갖 예쁜 꽃들이 심겨져 꽃동산이 된 모습을 바라보니 어깨와 허리는 아팠지만 바라보는 마음에 기쁨과 만족감이 충만하였습니다.

버스로 일행을 먼저 보내고 뒷정리를 한 후, 교인들과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한 장로님께서 "이 일이 20년 된 숙원 사업이었어요. 매해 조금씩 밖에 하지 못하다보니 이듬해는 다시 잡초로 뒤덮여서.."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하였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함께한 모두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3여전도회 임원들은 그 날의 감동을 안고, 우리가 심어둔 화초들의 모습을 궁금해하며 6월 19일 송우제일교회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영숙** 권사 / 3여전도회장

**4여전도회 | 삼성교회**

여전도회 사역 중 하나인 4여전도회 협력교회는 파주 삼성교회로 정해졌습니다. 담임이신 윤덕영 목사님과 기도 제목을 나누던 중 '5월 26일 창립 67주년 100명 이웃 초청 마을 잔치'를 위한 식비와 선물비에 필요한 금액을 알게 되었고, 이 사업의 후원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4여전도회원들의 헌금으로 부족한 금액이 채워져 사업에 일부 재정적 도움이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5월 9일 배윤환 목사님과 45명의 4여전도회원이 함께 삼성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교회가 분리되는 일로 힘든 시간을 보내며 담임 목회자로서 겪은 어려움도 오직 맡겨진 사역에 충성함으로 극복되어 되어진다는 윤덕영 목사님의 간증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윤덕영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는 주님의교회의 관심과 사랑이 힘든 시기에 큰 힘이 되었노라고 감사의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의 방문 이후 삼성교회는 6개 마을의 주민들을 초청한 마을 잔치가 기쁨의 예배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왕희** 권사 / 4여전도회장

**1여전도회 | 광야의교회**

1여전도회 임원들은 4월 19일에 국내선교팀과 함께 임창진목사님께서 시무하시는 광야의교회를 방문하여 예정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광야의교회가 거여동에서 시작할 때는 이전에 섬기던 성도들이 거의 떠난 막막한 상황에서 맞벌이 부부의 어린이 돌봄을 위해 방과 후 도서관 사역을 시작했던 것이, 지금은 위례신도시 새 성전에서 유.초등생 20여 명, 청년부 20여 명 등 등록교인 90여 명의 성도들이 1부와 2부로 나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변 아파트 단지에서도 새로운 식구들이 많이 등록하여, 텃밭에서 가꾼 채소로 식탁의 교제도 나누며 가족적인 분위기로 교회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남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하늘꿈작은도서관은 지원금으로 새 책도 다수 구입하고, 아이들 특별활동도 다양화하여 돌봄사역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교회와 도서관을 지역민을 위해서 열린 공간으로 개방하여 동아리모임 등으로 누구든 자연스럽게 교회를 접하게 하였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마음 밭에 행복의 씨앗을 심어 주위의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 섬김의 길을 가는 광야의교회가 내년에는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합심하여 기도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경희** 권사 / 1여전도회장

**2여전도회 | 예제교회**

**교회명** : 예제교회(예수님의 제자)
**위치** : 송파구 가락동
**담임목사** : 우동윤 목사(전 주님의교회 부목)
**일시** : 5월 31일(금) 12시
**인원** : 9명(2여전도회 임원 및 회원, 담당목사)

유난히도 무더웠던 날, 약속된 시간보다 약 한 시간 일찍 모여 예제교회 근처 식당에서 오랜만에 우동윤목사님 부부와 함께 오찬을 나누었습니다. 반갑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식당에서 3~4분 거리에 위치한 예제교회에 도착하니 사모님께서 우리를 위해 손수 다과를 예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준비한 과일도 함께 나누며 주 안에서 서로 사랑과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손수 만들어 주신 커피의 향이 가득했고 감사했습니다.

교회는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 내부는 참으로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우목사님 부부와 너무 이미지가 닮은 것 같았습니다.

먼저 2여전도회에서 마음모아 준비한 '특별 방문헌금'을 우목사님께 전달해 드리며 자연스럽게 우목사님의 근황과 예제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둥글게 둘러앉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우목사님 말씀과 회원들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우목사님께서는 건물 3층 305호에 교회가 위치한 것을 누가복음 3장 5절 말씀(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을 적용하여, 3공 즉, '공유' '공감' '공생'을 모토로 교회 공간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공유하고 지역의 필요한 부분을 공감하며 공생을 도모하여 하나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위해 많은 기도를 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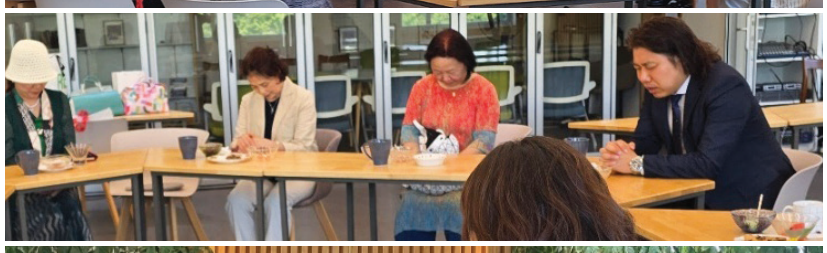
현재, 말씀과 삶이 하나되는 실천적인 신앙인들인 중학생 6명, 청년 12명을 포함 40~50명이 출석하고 있으며 아름답고 따뜻한 이상적인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매주 금요일 저녁에 '찬양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진행하고 있다며 환한 미소를 띄우셨습니다. 청년들의 활동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제교회의 청년들을 사랑하시며 미래를 위해 키우고 계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처음 이 건물의 허술한 모습을 보시고 많이 힘들어하셨지만 주님의교회에서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이토록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생각하시며 늘 감사한 마음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교회가 건물의 3층에 위치하고 있으나 엘리베이터가 없어 병약자와 노약자에게는 교회 출석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약 1억원이 소요되기에, 이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쉽지 않은 문제에 당면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일하실지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시며 예제교회에 발걸음하시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며 심신이 약한 자들을 품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두어시간 간담회를 끝으로 배윤환 여전도회 담당목사님께서 예제교회의 기도제목을 놓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주시고 예제교회 방문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고유자** 권사 / 2여전도회장



창립 35주년 기념 전교인 설문조사
심층분석 시리즈 ⑤

# 세대별 교인 변화에 대하여

지난해 실시한 창립35주년 기념 전교인 설문조사는 2018년 설문조사 이후, 교회와 관련하여 지난 5년간의 흐름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뜻깊었습니다. 〈함즐함울〉 477호(2023.12. 31.)에 포괄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수록했지만, 교회의 현황과 미래를 좀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조사팀의 주제별 심층분석을 연재합니다. 함즐함울

창립 35주년 기념 전교인 설문조사 다섯 번째 심층분석의 주제는 '세대별 교인 변화'입니다. 우리나라의 세대별 인구는 시대에 따라 큰 변화를 보여 왔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급격하게 감소하여 1983년 대체수준(2.10명) 아래인 2.06명으로 떨어졌으며, 2000년대 들어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2000년 1.48명, 2010년 1.23명, 2023년 0.72명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 피라미드의 모양이 1960년대는 전체적으로 바닥이 가장 넓은 삼각형 구조였다면(중위연령 19.0세), 2024년 현재는 베이비붐 세대였던 60세 전후가 가장 넓은 마름모꼴을 띠고 있으며(중위연령 46.1세), 2072년에는 거의 역삼각형에 가까운 구조(중위연령 63.4세)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는 사회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18년 설문조사와 5년 주기를 두고 시행된 2023년 설문조사는 그런 점에서 교회 안 세대별 교인 구조에 대한 상징적인 통계를 보여줍니다. 이번 호에서는 두 시점을 기준으로 연령, 성별, 거주지역에 대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해 연령대를 청년(19~39세), 중년(40~65세), 노년(66세 이상) 등 세 세대로 압축했으며, 거주지역도 교회와 가까운 지역과 먼 지역으로 구분했습니다.

2018년 설문조사 당시 응답자 비율은 중년(62%) > 노년(25%) > 청년(13%)의 순서로, 중년이 월등히 높았으며, 중년에서는 여성(40%)이 남성(22%)의 두 배에 가까웠습니다. 거주지역에서는 중년(78%) > 노년(71%) > 청년(59%)의 순으로 교회 가까이 거주했습니다.

2023년 설문조사에서는 중년(57%) > 노년(34%) > 청년(8%)의 순서를 보였으며, 2018년에 비해 중년과 청년이 감소하고 노년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전체 여성 교인이 60%에서 64%로 늘어났는데, 노년의 여성(19%)이 2018년(12%)보다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노년의 남성(15%)보다도 높은 비율입니다. 거주지역에서는 중년(74%) > 노년(71%), 청년(71%)의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노년층은 거주지에 큰 변화가 없으나 청년의 경우 비교적 교회와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교인이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

2023년 기준 새로 등록한 교인의 비율(주님의교회에 등록한 지 6년 이하의 응답자)은 중년(66%) > 청년(18%) >노년(16%)의 순서로, 전체 교인의 비율 분포와 비교하면 청년이 노년보다 높습니다. 거주지역에서는 새로 등록한 교인 전체의 82%가 교회 가까이에 살고 있는데 이는 2018년 기준 74%, 2023년 기준 73%보다 훨씬 높습니다. 연령층별로 보면 노년(93%) > 중년(82%) > 청년(71%)가 교회 가까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전체적인 인구 구조의 변화와 같이 주님의교회에서도 지난 5년 동안 중년과 청년 세대의 비율이 감소하고, 노년 세대가 증가하여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 등록한 교인은 대부분 중년과 청년 세대이며(84%) 거주지가 교회가 가깝다는(82%)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장기적인 목회 방향에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설문조사팀**

늘푸른대학
봄소풍

# 즐거운 추억으로 기억될 봄소풍

서울 송파구에 있는 정신여고 안에 주님의교회가 있다. 그곳에서 선교 및 친목을 위해 늘푸른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늘푸른대학이 5월 21일에 봄소풍으로 산정호수를 다녀왔다.

봄소풍을 위해 집행부에서 사전답사, 먹거리 등을 꼼꼼히 준비했다. 소풍을 떠나기 전에 즐거움으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동심을 잃지 않은 듯 모두 기대감과 설레임을 띠고 있었다.

대형버스 3대에 나누어 탔다. 차내 모습을 보니 빨간 옷을 입고 오라는 말에 빨간색으로 어울려 '여기가 해병대인가? 빨간 마우라가 연상되기도 했다. 산정호수 도착하여 우선 점심으로 그곳에서 유명하다는 순두부 특식, 파전, 보리밥 등으로 배를 채운 후 산정호수를 각자가 선호하는 코스를 선택하여 걸었다.

코스 산책을 마치고 기대하던 보물찾기가 시작되었다. 보물찾기보다는 그들의 모습을 남기기 위해 촬영하다보니 다른 분들이 꽝도 상품이 있다며 나에게 넘겨주었다. 공짜로 받았으니 나도 옆에 있는 분께 드렸다. 그분이 받아온 상품은 행운상이라며 작은 액수 US달러가 들어 있었다. 내가 해외여행할 기회가 많이 있는 것 같으니 나에게 되돌려주었다.

하루를 즐겁게 지냈고 또한 즐거운 추억으로 기억될 것이기에 이를 성공적으로 집행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같이 동행해주셨던 여러 어르신들께도 고마운 마음이다. 개인사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다음 소풍에는 꼭 같이 참석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양병택** 집사 / 늘푸른대학

교회사용설명서㉜

# 긴급 상황 대처하기

## 사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정보

긴급 상황은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화재와 같은 재난, 응급환자 발생과 같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지난 6월 12일 아침,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부안 지진은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1년 이후 규모 4.0 이상의 지진만 하더라도 2021년 8월 전북 군산 앞 해역(4.0), 12월 제주 서귀포 인근 해역(4.9), 2022년 10월 충북 괴산(4.1), 2023년 5월 강원 동해 인근 해역(4.5), 11월 경북 경주(4.0)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으며, 발생한 지역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지며, 불안정한 물건이 넘어지는 것과 같은 수준인 진도-V 정도를 체감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지진, 화재, 응급환자 발생과 같은 긴급 상황이 일어났을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 사용 방법

### 지진이 발생했을 때

1. 지진으로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2.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3.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많은 교인이 대피하게 되므로, 각 층에 있는 비상대피 안내도와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 정연하게 계단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4. 대피할 때 엘리베이터는 도중에 멈추어 갇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만일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경우에는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립니다.
5. 건물 밖에서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주님의교회에서는 건물이 없는 운동장으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6.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교회 사무국의 공식 안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 화재가 발생했을 때

1. “불이야”라고 크게 외칩니다.
2. 근처에 있는 발신기(비상벨)을 누릅니다.
3. 화재 발생 지점이 명확하고 규모가 작을 때에는 건물 각 층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에 진압할 수 있습니다. 교회 건물에는 소화기 88대가 곳곳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4. 소화기를 사용할 때에는 ①소화기를 바닥에 둔 채 손잡이의 안전핀을 뽑고, ②한 손은 손잡이, 다른 한 손은 호스를 잡은 후, ③손잡이를 힘껏 누르고 화재 발생 지점에 호스를 겨냥하여 빗자루로 쓸 듯이 방사합니다.
5. 화재 발생 지점을 알기 어려운 긴급 상황에서는 각 층 엘리베이터 옆에 부착된 비상대피 안내도의 피난 동선에 따라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1. ‘응급환자’란 질병과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의미합니다.
2.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우선 현장 상황이나 주변 환경이 안전한지 파악합니다.
3. 응급환자를 발견한 사람은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주변 다른 사람을 지정하여 119에 구조요청을 하도록 부탁합니다. 혼자서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4. 신경 손상이 우려되므로 되도록 환자를 임의로 이동시키지 말고, 그 자리에서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실시합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의 경우 호흡 여부를 살펴보고, 호흡이 있을 때에는 혀가 기도를 막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호흡이 없고 심정지 상태인 환자에게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5. 심폐소생술은 다음의 순서에 따릅니다. ①응급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의식 반응을 확인합니다. ②반응이 없을 때 주변 사람을 지정하여 119 신고와 자동심장충격기(제세동기)를 요청합니다. ③이어서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심폐소생술이 미숙할 때에는 119로 전화하여 스피커 모드로 변환한 다음, 119의 전문 응급상담원의 도움 아래 처치합니다. ④심폐소생술은 가슴 중앙 부위를 성인 약 5cm, 소아 4~5cm의 깊이로 분당 100~120회 속도로 30회 압박한 후, 기도를 열고 인공호흡을 2회 시행하고 환자가 의식을 차리거나, 구조대가 올 때까지 반복 시행합니다. ⑤자동심장충격기(제세동기)가 필요한 경우, 1층 로비 안내데스크 옆에 비치되어 있는 기기를 사용합니다.
6.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때에는 ①심폐소생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놓은 뒤에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②자동심장충격기의 패드1을 오른쪽 빗장뼈 바로 아래에, 패드2를 왼쪽 젖꼭지 옆 겨드랑이 부착합니다. ③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환자에게서 손을 뗍니다. 자동심장충격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계속 하십시오”라는 음성 지시가 나옵니다. ④ “쇼크 버튼을 누르십시오”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점멸하고 있는 쇼크 버튼을 눌러 자동심장충격을 시행합니다. 단, 쇼크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⑤자동심장충격을 시행한 뒤에는 즉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비율을 30:2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행하며, 의식을 차리거나 구조대가 올 때까지 반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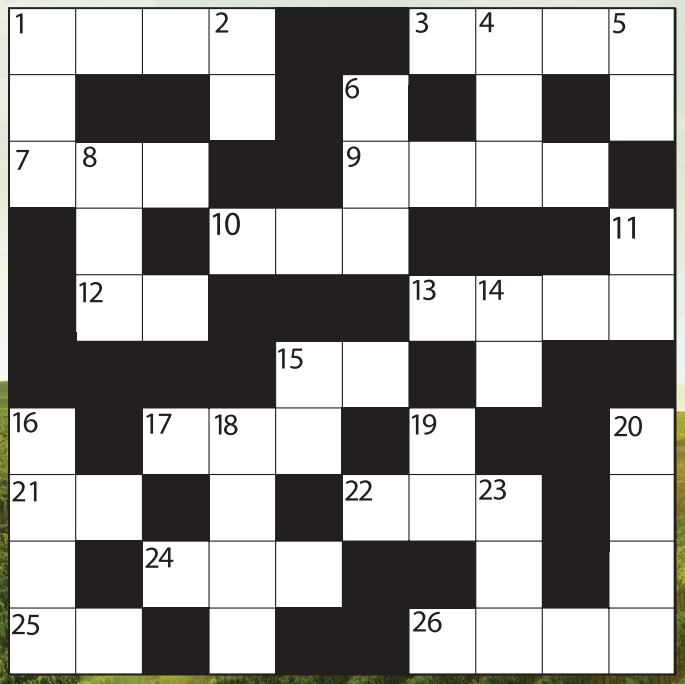
### 관리법과 주의사항

지진, 화재, 응급환자 등 긴급 상황은 언제나 예고 없이 일어납니다. 자신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행동 요령을 미리 살펴보고, 각 층 엘리베이터 옆에 부착된 비상대피 안내도와 소화기 위치 등을 한 번씩 확인해 두시면, 긴급 상황일 때 당황하지 않고 가장 바람직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즐함울

가족과 함께 풀어보는 성경 십자말풀이
호세아 편

이번 호는 <호세아> 편입니다. <호세아>의 저자는 기원전 8세기 무렵의 예언자 호세아로 알려져 있으나, 학계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호세아의 예언을 후대 사람들이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회개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찾으실 수 있도록 힌트에 해당 성경 구절을 안내했습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484호 다니엘 편 정답

| | | | | | | | | | |
|---|---|---|---|---|---|---|---|---|---|
| 아 | 하 | 수 | 에 | 로 | ■ | 아 | 벳 | 느 | 고 |
| ■ | ■ | ■ | 돔 | ■ | 바 | 사 | ■ | 부 | ■ |
| 갈 | 대 | 아 | ■ | ■ | ■ | 랴 | ■ | 갓 | ■ |
| 빗 | ■ | 스 | ■ | 본 | 바 | ■ | ■ | 네 | 뿔 |
| 대 | ■ | 부 | ■ | ■ | 벨 | 드 | 사 | 살 | ■ |
| ■ | 하 | 나 | 냐 | ■ | 론 | ■ | 자 | ■ | 미 |
| ■ | ■ | 스 | ■ | ■ | ■ | ■ | ■ | ■ | 사 |
| 벨 | ■ | ■ | ■ | 보 | 고 | ■ | 다 | 니 | 엘 |
| 사 | 드 | 락 | ■ | ■ | 레 | ■ | 리 | ■ | ■ |
| 살 | ■ | ■ | 우 | 바 | 스 | ■ | 오 | 늘 | ■ |

### 가로 힌트

1. 호세아와 고멜의 딸. '은혜를 받지 못함' 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은혜를 거두었다는 뜻이다. (호 1:6)
3. 북이스라엘 지역을 가리키는 이름. 원래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자손으로 이루어진 지파에서 비롯된 이름으로, 뒤에 사마리아로 불린 지역을 말한다. (호 4:17)
7. 성경 속에 나오는 지명. '지켜보는 자' 라는 뜻으로, 헬몬산 아래, 또는 요단강 서편과 동편 등 여러 곳의 이름으로 쓰였다. (호 5:1)
9. 북이스라엘의 수도. 므낫세 지파의 땅을 두루 의미하기도 했다. (호 7:1)
10. 재판소에서 분쟁의 판단을 주재하여 판결을 내리는 책임자. 재판관 가운데 가장 으뜸인 사람을 말한다. (호 13:10)
12. 군주제 국가의 최고 통치자를 일컫는 한국어. '왕' 이라고도 한다. (호 8:10)
13. 전 세계에 자라는 낙엽교목의 한 종. 나무에 물이 오를 때 가지를 꺾어 피리를 만들기도 한다. (호 4:13)
15. 예배의 대상으로 만든 물건이나 의식.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신앙의 대상을 이것이라고 한다. (호 9:10)
17. 수릿과에 속하는 맹금류. '머리가 벗겨진 수리' 라는 뜻으로, 나무나 절벽에 살며 주로 죽은 동물을 먹는다. (호 8:1)
21. 어떤 흐름이나 특징을 단위로 구분되는 시기. '석기 ○○' , '청동기 ○○' 와 같이 지질, 역사, 기술 발전 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호 10:9)
22. 브에리의 아들.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는 말씀을 들었다. (호 1:6)
24. 북이스라엘의 12대 왕. 예후 왕조의 세 번째 왕으로, 사마리아에서 통치하며 여호와께 악을 행했다. (호 1:1)
25. 아궁이의 연기와 열기가 빠져나가도록 만든 높은 구조물. 벽돌이나 금속으로 공기가 통하도록 관처럼 높이 세워 만든다. (호 13:3)
26. 유다 지파 에담의 자손. 호세아와 아내 고멜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들이다. (호 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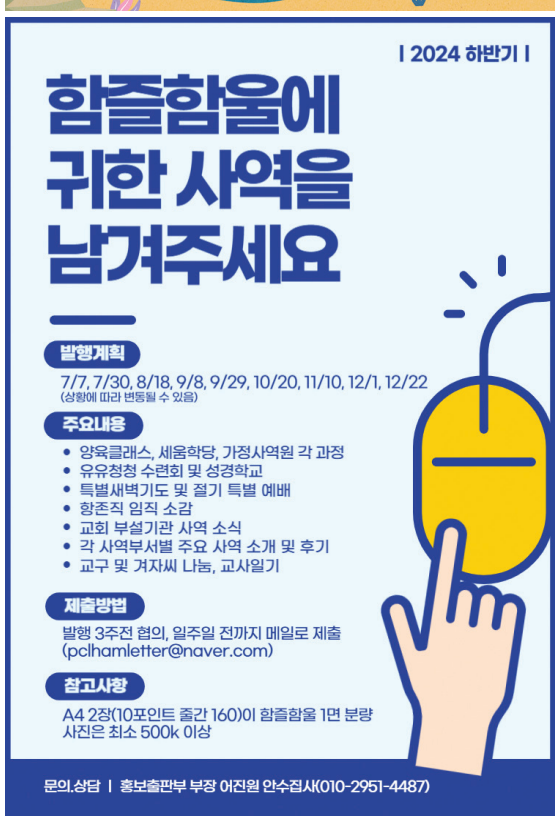
### 세로 힌트

1. 호세아의 아들.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다. (호 1:9)
2. 군마를 타고 싸우는 병사. '기병' 이라고도 한다. (호 1:7)
4. 선지자 호세아의 아버지. 예언자였으나 예언의 기록이 많지 않아 〈이사야〉에 한두 구절 인용되었다는 연구도 있다 (호 1:1)
5. 아기를 갖는 것. '잉태' 라고도 한다. (호 9:11)
6. 제사 의식을 집전하는 책임자. 성경에서는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맡았다. (호 4:4)
8.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유황불에 멸망한 성읍.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곳처럼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호 11:8)
11. 초본이 아닌 여러해살이 식물. 뿌리와 줄기가 있고 가지가 벌어진다. (호 4:12)
14. '드리다' 의 명사형.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 같이 가증하여졌도다." (호 9:10)
15. '나'의 복수형. '나' 를 비롯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부르는 말이다. (호 6:1)
16. 가시나무의 넝쿨. 가시가 있는 나무 넝쿨이 엉켜 있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호 9:6)
18. 소의 새끼 중 수컷을 이르는 말. 암컷은 '암송아지' 라고 한다. (호 14:2)
19. 권력과 세력을 함께 부르는 말. 보통 '○○를 누리다' 와 같이 쓴다. (호 13:14)
20. 야곱이 얍복강 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긴 후에 불려진 이름. 야곱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민족을 뜻하기도 한다. (호 3:1)
23. 유다의 12대 왕. 이방 민족의 풍습을 좇아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다. (호 1:1)

교회소식

# 베트남에서 전한 '회복'

주님의교회 김화수 담임목사는 지난 5/27(화)~5/30(금)까지 3박 4일간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된 PCK여성선교사대회에서 '회복'을 주제로 한 특강을 하였다. 또한 호치민에서 3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빈롱에 가서 우리 교회 파송선교사인 최화평 선교사부부와 야린선교사를 만나 격려의 말을 전하였다.




## 교회일정

| | |
|---|---|
| 6/16 (주일) | 통일선교주일 |
| 6/19 (수) | 통일선교주관 수요기도회 |
| 6/23 (주일) | 창립기념주일(36주년) |
| 6/26 (수) | 겨자씨 인도자 교육 1학기 종강 |
| 7/3 (수) | 교구연합 수요기도회(1교구) |

## 알립니다

### 1. 청소년숲 필리핀(몬탈반)선교를 위한 후원행사

일시 : 6/16(주일) 오전 7:30 ~ 오후 3:30

장소 : 1층 로비

품목 : 필리핀과자, 커피(드립백, 더치), 백향과청

문의 : 임경순 목사(010.8466.0605)

### 2. 군선교기도회

주제 : 군선교주일 및 6.25 구국기도회

일시 : 6/16, 23(주일) 오후 2:00

장소 : 초등부실(3층)

문의 : 복향수 안수집사(010.5071.4411)

## 삶의 힘이되는 목소리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02) 416-5183**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구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


## 함즐함울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김낙균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 집** : 홍보출판부


〈함즐함울〉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즐함울' 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 pclhamletter@naver.com

주님의교회